

빛바랜 2분기 1.1% 성장... '정부 재정지출'로 버텨

GDP 성장률 1%대 턱걸이...역성장 충격 벗어났지만 수출·민간투자 부진 계속...민간 기여도 '마이너스' 한은 "민간 개선 여부 하반기 경기 회복세 주요 관건"

우리나라의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1%를 기록했다. 지표상으로 경기가 반등한 것처럼 보여도 실은 정부 재정지출로 겨우 버틴 '외발 성장'이었다.

수출과 투자 부진세는 지속됐고 민간 소비마저 뚜렷하게 살아나지 못한 탓에 민간의 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로 추락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9년 2분기 실질 GDP' 속보치에 따르면 2분기(4~6월) 실질 GDP는 전분기대비 1.1%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7년 3분기(1.5%) 이후 7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1분기 성장률이 0.4% 뒷걸음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고꾸라졌던 데에 따른 충격은 다소 감한 셈이다.

그렇다고 경기가 살아난 것은 아니었다. 2분기 1%대 성장이 가능했던 건 정부가 재정 조지집행에 나선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지난 1분기 0.4%에 그쳤던 정부 소비는 2분기 2.5%로 확대됐다. 막바지 재정을 쏟아냈던 지난해 4분기(2.8%) 이후 2분기 만에 최고치였다. 이로 인해 2분기 성장률 1.1% 중 정부의 기여도가 1.3%p나 됐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2분기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커진 건 중앙 정부의 재정집행 높아지고 지방 교부금이 집행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수출과 민간 투자 부진세는 지속되면서 민간의 성장 기여도는 1분기 0.1%p에서 2분기 -0.2%p로 내려앉았다. 마이너스를 나타낸 건 지난해 4분기(-0.3%p) 이후 2분기 만이다.

특히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를 나타내는 총고정자본형성에서 민간의 기여도는 -0.5%p로 1분기(-0.2%p)보다 더 후퇴했다.

결국 민간에서는 성장률을 끌어내렸고, 정부가 견인한 셈이다. GDP에 대한 지출 항목별로 보면 지

난 1분기 -3.2%로 뒷걸음쳤던 수출은 전분기 대비 2.3% 늘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표가 개선된 것은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가 일정 부분 작용했기 때문이다.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0.1%p였다. 반도체 경기 회복이 지연 등으로 부진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출이 성장세를 끌어내렸다는 얘기다.

건설투자가 1.4%, 설비투도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하면 건설투자(-3.5%), 설비투자(-7.8%) 모두 마이너스 성장했다. 수입도 3.0% 늘어 1분기 -3.4%에서 플러스로 전환했다.

민간 소비는 0.7% 증가해 1분기(0.1%)보다 증가폭이 커지긴 했다. 그러나 민간 소비의 성장 기여도는 0.3%p로 정부 소비 기여도(0.4%p)에 못미쳤다.

박 국장은 "수출과 민간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정부 지출과 투자 기여도가 큰 폭 높아지면서 경제성장률이 1.1%로 반등했다"며 "하반기에 민간이 개선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가 주요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교역조건이 나빠지면서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0.6% 감소했다. 수입 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더 크게 상승한 영향이다.



현대·기아 실적호조에 물류·부품 계열사 '방긋'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2분기 실적호조를 보인 가운데 부품계열사인 현대모비스, 물류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 등이 모두 실적 큰 폭으로 개선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0.2% 증가한 1조2377억원에 나타났다. 기아차 영업이익의 역시 533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3% 증가했다.

현대차의 경우 일화약세 등으로 우호적인 시장환경이 조성되고 팰리세이드 등 신차가 판매호조를 보이며 2017년 3분기(1조2042억원) 이후 7분기만에 분기영업이익 1조원대가 회복됐다. 기아차도 글로벌 무역갈등 지속과 주요 시장의 수요 침체 영향으로 판매물량이 감소했지만 고수익 신차종 판매가 확대되며 실적이 상승했다.

올 2분기 평균 월당리 환율을 1165.9원으로, 전년 동기(1078.6원)에 비해 8.1% 상승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가격 경쟁력도 높아졌다.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형제 모델인 현대차 '팰리세이드'와 기아차 '텔루라이드' 역시 현대·기아차의 'V자 반등'을 견인하고 있다. 팰리세이드는 국내에서, 텔루라이드는 미국에서 양사의 상반기 실적 회복을 주도했다. 현대차는 오는 10월부터 미국에서 팰리세이드의 본격 소매판매에 돌입할 예정이다.

최근 동시 출격에 나선 현대차 '배뉴'와 기아차 '셀토스' 등 소형 SUV도 인도 등 글로벌 시장에서 공격적 판매에 나선 전망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완성차업체인 현대·기아차의 호실적은 그룹 내 부품·물류계열사의 실적에도 이어졌다.

현대모비스는 2분기 6272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전년 동기 대비 18.1% 증가한 수치다.

완성차 생산은 줄었지만 코나 EV 등 전기차 생산이 증가하면서 전동화 부품 공급 증가와 디스플레이 오디오 등 고사양 차내 인포테인먼트 설비(IVI) 매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현대·기아차가 선전한 북미 지역과 인도시장에서는 AS사업 매출이 증가했다.

현대글로비스의 2분기 영업이익 역시 2022억38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0% 증가했다.

현대·기아차의 내수차량 및 미주지역 완성차 생산이 늘고 비계열 물량도 증가했다.

보양하려다 나트륨 폭탄...너무 짠 즉석 삼계탕

한 팩당 평균 하루 기준치 75% 함유

지방 33g, 나트륨 1497mg이 함유되어 있다.

즉석삼계탕 한 팩을 먹는다면 1일 기준치보다 많은 탄백질(139g)을 섭취할 수 있다. 지방은 1일 기준치 절반 이상인 61%, 열량은 37%, 탄수화물은 10%를 섭취할 수 있다. 나트륨 평균 함량은 1일 기준치의 75%에 해당 1497mg으로 조사됐다.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은 안심삼계탕(농림축산식품부)은 한 팩을 먹으면 1일 기준치 2000mg의 97%에 달하는 1938mg의 나트륨을 섭취하게 된다.

닭고기와 부재료 등 먹을 수 있는 부분이 가장 많은 제품은 풀무원의 제품이 989g으로 가장 많았고, 마니커의 닭터의자연삼계탕이 771g으로 가장 적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나트륨 저감화를 위한 자율 시정을 해당 업체에 권고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즉석삼계탕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스

으로 안전성과 품질, 표시 적합성 등에 대해 시험·평가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평가 결과 탄백질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지만 나트륨 함량이 높았고, 일부 제품은 영양성분 표시가 실제 함량과 달랐다. 미생물이나 동물용 항균제 등 유해 성분은 전 제품에서 기준에 적합했다.

한 팩의 평균 영양성분은 열량 734kcal, 탄수화물 33g, 탄백질 77g,

삼성 '갤럭시 폴드' 9월 출시

"폰이 접히는 힌지·화면 보호막 등 개선"

삼성전자는 자사의 첫 번째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Galaxy Fold)'를 오는 9월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갤럭시 폴드는 당초 지난 4월20일 미국에서 출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리뷰용으로 지급된 제품에서 폰이 접히는 경첩(힌지)부분과 액정 부품에서 일부 결함 등 화면 불량 이슈가 제기되면서 출시가 미뤄졌다.

삼성전자는 최상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철저한 분석을 진행했으며, 갤럭시 폴드의 디자인을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개선 사항에 대한 엄격한 테스트로 유출성도 검증했다.

우선, 삼성전자는 갤럭시 폴드에 탑재된 인피니티 플렉스 디스플레이(Infinity Flex Display) 최상단 화면 보호막을 내걸 아래까지 연장해 화면 전체를 덮었다. 화면 보호막이 디스플레이의 한 부품으로 보이게 하는 동시에 임의로 제거할 수 없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폴드의 접고 펴는 사용 경험은 유지하면서 외부 이물질로부터 제품을 더욱 잘 보호하도록 구조를 보강하는 것으로 해결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최종 제품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9월부터 글로벌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갤럭시 폴드는 필럿을 때는 갤럭시 스마트폰 중 가장 큰 7.3형 디스플레이로 확장된 사용성을 제공하지만, 접었을 때는 한 손으로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경험을 모두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뉴스스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GWANGJU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